

광주 사립유치원 11곳 교사 처우개선비 부담 수령

시의회, 교육청 사무감사... 운동장 천연잔디로 교체해야 학교폭력 피해학생 일부 아무런 보호조치 못 받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1곳이 올해 교사 처우개선비를 부담 수령했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지역 학교운동장에 조성된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일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경호 의원(민주·북구2)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1곳이 교사 처우개선비를 부담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사립유치원 운영 지도 점검'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와 방과후과정 인건비 부정 지급을 적발하고 5000만원에 대해 환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전체 172곳의 사립유치원 가운데

145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11곳의 사립유치원에서 14건의 인건비 보조금 부정 지급을 적발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로 매월 담임수당 13만원, 교직수당 25만원, 인건비 보조 21만원 등 연간 105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적발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국공립교원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한 급여 수령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립유치원 회계 교육 강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광주시의회 김광란(민주·광산4) 의원은 이날 행정감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목표만 있고, 세부계획이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와 광주시 도시공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우선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시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현재 2.6%에서 2022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용률 역시 현재 4.9%에서 20%까지 늘릴 예정이지만 "20% 달성 목표만 세워둔 채 이를 현실화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전무하다"는 계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이날 이흥일 의원(민주·동구 제1)은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장에 조성된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천연잔디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지역 32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돼 있고 관련 조례에 따르면 2년마다 이들 운동장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주기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조잔디는 플라스틱과

페타이어 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가올수록 파열 세움, 불순물 제거, 충전제 보충 등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유해성 물질로 인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순애 시의원(민주·서구2)은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2015년에 비해 2배정도 증가하였지만, 그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피해학생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15년 694건, 2016년 834건, 2017년 1153건, 2018년 9월까지 713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는 2015년 피해학생 968명에게 1759건, 2016년 피해학생 1240명에게 2141건 조치한 반면 2017년도에는 피해학생이 1497명에도 조치건수는 1014건에 그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2순환로 방음시설 설치비 광주시, 수백억원 떠안는다

LH 상대 소송서 패소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4구간) 방음시설(터널) 설치비 수백억원을 떠안게 됐다. 2순환도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면서 정작 사전에 소음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LH를 상대로 제기한 택지개발이익금을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수완지구 택지개발을 한 LH를 상대로 개발이익금의 절반(425억원)을 내라는 소송으로 이 돈으로 4구간(신가 지하차도~산월IC) 방음시설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가 개발이익금(920억원)을 낸 만큼 추가로 낼 의무가 없으며 방음시설 설치도 도로 관리자인 시에 있다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LH는 앞서 2009년에도 2순환도로 인근 신창지구 아파트 주민들과 소송에서도 방음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며 승소했다.

문제 구간은 신창과 수완지구를 가로지르는 2순환도로로 도로변을 따라 6개 단지 아파트 6010가구가 들어섰다. 하루 수만 대의 차량이 통행, 주간 70.6dB, 야간 66.7dB로 환경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측정됐다.

앞서 광주시는 진월-풍암동 부근 순환도로 방음시설에서도 10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이처럼 광주시는 최근 5년 사이 2순환로를 비롯해 무진대로 등 큰 도로 주변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뒤 이후 주민들의 소음 민원 등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2순환도로 곳곳에 방음시설이 뒤떨어 조망권 침해와 도심 경관 훼손, 유지관리 비용 발생, 교통사고 유발 우려, 터널내 공기질 악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형 기초보장제' 122가구 1억 지급

복지사각 주민 생계비 지원

광주시는 5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122가구에 총 1억원의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20만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1인 가구 기준 66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사실 확인을 거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완화된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도시의 재산 기준 5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 가구 기준 5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지원 상황을 보고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점진적으로 더 완화해 더욱 탄탄하고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중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취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6대 정중태(사진)사장이 5일 취임했다.

신인 정중태 사장은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입사해 오스트리아 빈 무역관장, 미국 시카고 무역관장, 코트라 운영지원처장, 유럽지역본부장, KOTRA 아카데미 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중태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창

출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구현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동광주~광산나들목 간 호남고속도 확장' 본격 추진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
출퇴근 교통체증 숨통 트일 듯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동광주에서 광산나들목 간 호남고속도로가 확장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광주시는 5일 "동광주-광산나들목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추진한

다"고 밝혔다.

동광주~광산 나들목 10.8km 구간은 1973년 2차로로 개통한 뒤 1986년 4차로로 확장됐다. 하지만 현재는 최대 평균 통행량이 13만대에 육박해 6차로 확장 기준인 5만2000대를 초과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고, 낮 시간대에도 지체와 정체 현상이 심하게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총 공사비는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과 노후된 구조물의 개선비용이 증가하여 당초 사업비 2762억원에서 1269억원이 늘어난 40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고속도로 본 노선의 차로수가 6~8차로로 확장되면 그 동안 교통 체증으로 불편을 겪었던 북구 동광주나들목-용봉나들목, 서구 서광주나들목-동광주나들목-빛고을대로, 광산구 산월나들목 등에서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인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돼 그동안 자동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었던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에는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용봉나들목 진입로 추가 설치도 포함돼 있어 현재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출구만 있는 용봉나들목에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노후연금처럼 100KW급 매월 300만원·50KW급 매월 150만원 수익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흥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흥 | 기보종합건설